

제주에서 판문점까지...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 광주·전남 방문

# 우리 사회 갈등·아픔 치유 그대... 함께 걷고 싶습니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을 이끄는 도법스님.

한센인·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제  
한빛원전·동학혁명유적지 순례

12일 광주서 시민 참여행사 다채  
'야단법석' 열고 '생명평화 100배'  
'무등산 풍경소리' 콘서트 참석도

우리 사회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벗다신 그대, 함께 걷고 싶습니다'를 주제로 전국 순례에 나선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이하 순례단·단장 도법 스님)이 오는 12일 광주를 찾는다. 특히 순례단은 이날 제119회 무등산 풍경소리 행사에 함께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이끄는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은 지난달 3일 제주 항일운동의 발상지인 서귀포시 법정사지를 시작으로 여정을 시작했으며,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전남지역을 순례하고 있다.

지난 1일 광주·전남 첫 순례지로 구례를 택한 순례단은 화엄사에서 생명평화를 서원하는 100배 절명상을 시작으로 지리산 천은사, 서사천 둔치공원 등 약 12km를 도보 순례했다.

이어 이튿날 여수로 이동, 여순사건 발원지인 신월동 14연대(한국화학여수공장), 진남관, 여수교, 기쁨유출 오염지 신덕마을 등을 둘러봤고, 지난 3일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거주지역인 소록도와 여순사건의 상흔이 남아있는 장담마을에서 각각 한센인과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냈다.

나흘째인 지난 4일에는 한국전쟁 당시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벌교 지역을 순례했고, 5일에는 순천역전, 철도운동장, 죽도봉헌총탑 등을 걷고, '위령제 및 국민통합문화제', '야단법석', '생명평화화담회' 등을 열었다. 6일에는 순천에서 함평으로 이동해 용천사에서 함평양민학살사건 위령제를 진행했다.

7일에는 영광군정을 출발해 한빛원전지역발전소까지 약 20km를 걷고, 8일 무안에서 동학농민운동유적지, 봉불사, 목포대를 순례하고 오후 7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이 6일 함평 용천사(주지 지상 스님)에서 함평 양민학살사건위령제를 올리고 있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 제공>

시 협동조합카페 오즈에서 '대화마당' 행사를 연다. 9일에는 목포역을 출발 (구)동원본사, 국도 1·2호선 기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평화광장을 둘러 본 뒤 10일 장흥으로 이동해 이방언장군묘소, 용산면사무소, 동학혁명기념탑 등을 순례한다. 11일 순례지는 나주다.

광주·전남 마지막 순례지로 오는 12일 광주를 찾는 순례단은 선덕사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순례단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야단법석' 행사(오후 1~3시)를 연다. 이어 오후 3~6시 오월길을 따라 광주를 순례하고, 중간에 광주역에서 '생명평화 100배' 행사를 진행한다.

오후 7시부터는 원불교 광주교당에서 '원불교 99년 대각개교절 기념 및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국민통합문화제'를 겸해 열리는 119회 무등산풍경소리 '나를 만나러-조동희 콘서트'에 참석한다.

이날 무등산풍경소리에는 노래스님으로 조동희(보컬)씨를 비롯해 김준오(기타), 김용식(베이스), 유호근(드럼), 배미진(건반), 김현성(포크가수), 한빛고등학교(밴드), 원불교합창단(광주교당) 등이 초대됐다.

또 김민혜 목사(순천사랑어린이배움터), 도법 스님(화쟁코리아100일순례), 연광 스님(무등산 중심사 주지), 이정택 교무(원불교광주전남교구장), 이영선 신부(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이우원 선도사(천도교한울연대) 등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석한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의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liveasabuddh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무료로 순례단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음료 및 점심 도시락 개인 준비) 문의 010-3017-090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구천 前 광주시립합창단장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내정

광주시립합창단장을 역임한 구천(광주대 음악학과 겸임교수)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가 국립합창단 신임 예술감독으로 내정됐다.

구씨는 오는 7월 12일 임기 만료되는 이상훈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의 뒤를 이어 합창단을 이끌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구씨는 총신대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광주대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했으며, 미국 웨스트민스터합창대학에서 지휘법을 수학했다.

20여 년간 국립합창단원으로 활동했으며 전국시립합창단연합회 회장, 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2008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2009년 서울음악대상 등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현대미술 '명작'들이 온다

데미화랑, 내일~18일 '현대미술명품전'



사석원 작 '새 두마리'

권옥연, 김창철, 임직순, 이우환, 사석원 등 '명품' 작가들의 '명작'이 봄을 맞아 광주를 찾는다.

데미화랑은 8~18일 '현대미술명품전'을 개최한다. 초현실주의적 기법에 향토적 서정미를 융화한 풍경에 다뤄진 권옥연 화백의 '하얀달', 제8회 오지호 미술상을 수상한 김형근 화백의 '포도가 있는 정물', 물방울 화가 김창철 화백의 '물방울', 생선작가 중 최고의 작품 가격을 자랑하는 이우환 화백의 'from Point' 2점 등이 전시된다.

또 임직순 화백의 '강이 보이는 풍경', 오승운 화백의 '초가을'과 '석양은 재를 넣고 중에서', 김미랑, 남관, 오천룡, 윤병락, 전병현 화백의 작품 등도 만나고

지난 1977년 '현대화랑'으로 광주에 문을 열고 강연균·임직순·오승운 등 작가들의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서양화 붐을 주도했던 데미화랑은 지난 2012년 6월 재개관을 시작으로 지역민들에 격조 높은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장상열 대표는 "임직순 화백에서 부터 젊은 작가 김미랑까지 한국의 미술을 빛낸 작가들"이라며 "현대 미술의 격조 높은 진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70-4388-950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오방의 삶' 복원 의미... 극적 구성은 아쉬워

광주시립극단 연극 '오방 선생'



화려한 장치 없는 단출한 무대 위에 등장한 중년의 사내는 거세 수술을 해달라며 고집을 부린다. 수술 후 그가 의사에게 건넨 건 "나는 죽었다"는 사랑 통지서.

광주를 주름잡는 젊은 건달 '무등산 호랑이'로 불렸던 그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하고 한센인 치료에 온 생을 바친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윤모)이 지난 3~6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무대에 올린 '오방 선생'(희곡 김창일·연출 삼재찬)은 이 세상 가장 낮은 자, 소외된 자들의 아버지였던 오방 선생의 삶을 차분히 그려나갔다.

광주 1백년사 연극 시리즈의 첫번째 작품으로 무대에 올린 이번 연극은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오방 선생의 삶을 복원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하지만 극적 구성 등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오방 선생'은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의 장점과 한계를 모두 보여줬다.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극적 스토리, 예를 들면 나환자와 최복사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보름을 걸어 일본 총독을 만나는 구라 행진 장면과 김민기의 '작은 연못'이 흐르며 보여지는, 마지막까지 민초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오방의 죽음 등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인물의 스토리를 따라가다보니 전반적으로 희

곡이 밋밋하고

제작진이 표방한, 오방선생의 삶과 시대적 문제들이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기에는 작품의 힘이 부족했다.

배우들 중에서는 주인공 최홍중 역의 김수현의 연기가 단연 돋보였다. 20대 청년부터 노년 연기까지 소화해낸 그는 극의 중심을 잡는다. 1인 다역을 소화한 지역 배우들의 노력도 느낄 수 있었다.

반면 음악과 영상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영상이 무대 배경으로 쓰인 나무 등에 가리워져 제 역할을 못하는데 특히 중간 부분에 등장한 영상신은 불필요했다. 또 나환자들의 행진 장면에서 쓰인 음악 등은 너무 정형화돼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는 등 음악이 전반적으로 작품과 걸도는 느낌이였다.

무엇보다 대사 전달이 약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홍중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나환자의 지팡이 신에서 불필요한 소리꾼의 등장은 관객의 시선을 분산시킨데다 대사 전달력을 떨어뜨려 최홍중의 고뇌와 갈등에 관객들이 이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버렸다. 다소 긴 각설이 장면에서도 역시 최홍중의 대사는 객석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작품상의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인물과 역사를 찾아나선 여정은 반갑다.

'조선의 테레사'로 불렸던 서서평 등 역사 속에 가리워져 있던 광주의 인물들을 다시 호출해내며 관객들이 광주의 사람과 광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은 의미 있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 거점기획·운영전문가 교육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10일까지 25명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0일까지 문화예술 거점기획 및 운영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정, 공간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8개월간의 집중 전문교육을 통해 바로 현장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 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15일부터 10월까지 24주 동안 광산구 협동조합의 집, 원담숲 어울마루 등에서 직무소양교육, 문화적 공간 재구성 등 이론교육과 문화예술거점 공간 탐방, 연구결과물 시연 및 발표 등 실무과정, 모둠별 코칭 워크숍, 소총단 문화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광주시 거주 35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수강료는 무료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실비가 지급되며 수강생 중 우수자를 선발해 국내 문화관련 공공기관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55~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9

# 이태리 가구 전문점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1899-0240 **홍스페이스 가구빌딩**